

농협전남본부, 중동궤 유류난 돌파구 마련 총력

농협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 면세유 확대·추경 반영 등 정책 건의 영농철 앞두고 에너지 공급 안정화 추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농협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일 “최근 농협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협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농협 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에는 전남·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는 ▲신규회원 가입 보고 ▲2025년 사업결산 심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 가격 변동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유류 가격 급등이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남 지역 농협주유소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유류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대응보다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보 공유와 공동 구매 등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면세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정부에 농업용 면세유 전 유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정수 농협 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장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합장들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과 농촌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합장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본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협주유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전남광주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유류 공급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호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학습 환경이 열악해진 농업인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학습권 확보하기 위해 관내 수해 지역 농업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용 태블릿PC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희망의 태블릿PC’ 전달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자녀 대상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일 “최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관내 수해 지역 농업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용 태블릿PC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인해 학습 환경이 열악해진 농업인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학습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해가 컸던 광주농협, 북광주농협, 삼도농협, 송정농협 관할 지역의 농업인 가정이며, 지원 규모는 학습용 태블릿 PC 245개다.

전달된 태블릿PC는 최신 교육용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기기로, 수해 복구에 전념하느라 자녀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호우 피해로 상심이 컸을 농업인들에게 이번 교육 기기 지원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이번 태블릿PC 지원 외에도 수해 지역 농가 일손 돕기, 영농 자재 지원 등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인태호기자

전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348억 투입

문화생활·건강·보육 분야 등 9개 사업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돌봄도 촘촘

전남도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생활, 건강 복지, 보육 분야 등 9개 사업에 올해 348억원을 투입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해 영화, 서점, 미용,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올해 10만7천여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 연령을 최고 75세에서 80세로 확대해 전년보다 1만3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영양중독 등 5개 영역에 대한 건강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최고 70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만2천700여명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받게 됐다.

농번기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에 영농 대형 인건비를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에 따른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시원기자

도, 농식품 가공분야 36개 기업 30억 지원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강화 등 6개 분야 기업당 최대 5억원...자부담 비율 30-40%

전남도는 1일 “2026년 전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 사업 대상 농식품 기업 36개소를 선정,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확정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강화 ▲전통식품 산업화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양과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등 총 6개 분야다.

이번 공모 선정은 1차로 시·군 지원사업 심의회를 통과한 적격 업체 5개 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선정 심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기업의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종합 평가했다.



강진지역 시군특화지원사업 현장.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기반 정비 시설과 장비 구축,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0-70%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30-40%다.

전남도는 이날 중 사업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반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가공산업은 전남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며 “선정 기업이 탄탄한 자생력을 갖춘 지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4월 초 추가 모집에 나서 지역 농식품 가공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